

##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예상과 준비

### 시작하는 말

우리 민족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는 통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치, 군사, 경제, 법률적 측면의 통일을 이루는 소위 “땅의 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50년 이상을 체제, 사상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전혀 왕래가 없이 지내 이질화되어 버린 남북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게 되는 통일, 즉 “사람의 통일”이라는 또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을 의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이것은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경제적 수준으로나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개발과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및 공급은 땅의 통일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는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의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상적인 이질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는 땅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 그 두 가지 모두를 위한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의학은 통일 이후 어떤 과제를 안게



전 우 택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wtjeon@yumc.yonsei.ac.kr

□ **핵심용어** : 통일, 정신의학, 정신보건 의료전달체계

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통일 이후 예측되는 정신의학적 과제들

통일 이후 정신의학이 가지게 될 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1. 북한 강제수용소 사람들의 정신 건강 및 사회 복귀 문제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는 하나 통일 이후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게 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 및 그들의 사회 복귀 문제가 정신의학적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나찌의 강제수용소와 같은 성격의 강제수용소는 아니다 할 지라도 현재 북한에는 20~3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안에서 생명의 위협, 고문, 식량난, 의료 혜택의 부족, 강제 노역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이들은 일반 북한 주민 출신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적응상의 문제들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과거 나찌의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소위 ‘강제수용소 증후군(Concentration Camp Syndrome)’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우울증, 불안증, 기질성 뇌증후군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에 적응하여 다른 사람들과 일터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치료하고 가정 생활 및 직장 생활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

#### 2. 기아로 인한 북한 어린이들의 뇌 발달 장애에 따른 문제

태아 시기에서부터 만 2세까지의 시기는 뇌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기간중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정신지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며 불안, 집중력 저하, 정서적 불안정성 등의 정신적인 성숙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차 대전 당시 나찌의 포위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네덜란드의 한 지역은 그 후 정신분열증의 발병이 매우 높아졌던 보고도 있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이 기간중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심한 영양결핍상태에 있어왔다. 따라서 이 어린이들의 뇌 발달에 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그 어린이들이 자라나 공부를 할 때 학습장애로 연결되며, 그들이 성인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뇌 발달의 문제는 단지 정신의학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목적에서가 아닌, 미래 통일국가의 인력 관리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상황이 있고, 따라서 통일 이후 정신의학계는 이 기간중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정신 의학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 3. 새로운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 정신의학적 문제

통일 이후 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출신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될 것이다. 물론 적응을 잘 하고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기회로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사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의학계의 주요 활동 대상이 될 것이다.

첫째, 새로운 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 힘들게 될 청장년층의 남자들 문제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가장 힘들어 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연령층의 남자들이었다. 한국에서 IMF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졌던 어려움을 훨씬 대규모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의학적 문제들은 북한 사람들의 과도한 음주 행태와 합하여져서 매우 심각한 알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 변화에 따른 북한 출신 여성들의 의식 변화로 생기는 가정 내 갈등과 붕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금도 매우 남성 우위의 전통 유교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도 사회에서 남자들에 비하여 매우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남자들보다도 먼저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여성들의 의식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가정 내에서 남성들과 큰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남성들의 취업률과 경제적 성취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

것은 많은 가정적 갈등을 야기하여 가정 불화, 자녀 양육의 혼란, 이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경우에서나 또는 베트남 패망 후 구 월남 출신 사람들이 미국 등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정신의학적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2).

셋째, 청소년들의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면, 통일은 구 동독 출신 청소년들을 뚜렷하게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새로운 물질적 풍요와 교육 기회에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편입되어 들어간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그런 변화에 저항하고 극단적인 저항 집단으로 바뀌어 사회 갈등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의 범죄 등에 대처하며 그들을 건강한 정신건강 속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4).

### 4.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신 보건 및 치료의 문제

어느 국가에서나 의료 자원의 분배과정에 있어 정신질환자들은 가장 마지막 수혜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북한의 정신의학계는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북한의 정신보건 요원들에 대한 교육, 시설의 확충, 약품의 공급, 정신보건 의료전달시스템의 정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매우 거대한 의료활동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 남한에서도 그리하였던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한 사회적 낙인(stigma)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역시

중요한 활동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

#### 1. 북한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신의학은 타 의학 영역과 비교하여 환자들이나 활동대상 사람들의 문화 및 삶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왜냐하면 정신의학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해는 결국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것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도와야 하는 남한의 정신과 의사들은 특히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황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의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의 그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꾸준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미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또한 북한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1, 5).

#### 2. 예상되고 있는 특수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특히 강제수용소 등에 들어가 있

던 사람들의 정신질환 치료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보았다. 또한 일반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 어떠한 심리적 갈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보았다.

이러한 예상들을 단지 예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결핍상태에 따른 뇌 발달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 식량 지원활동에도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의학적 이유를 가지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3. 북한의 정신보건 의료전달체제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통일 이후 모든 영역에 있어 북한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남한과 똑같은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도입을 상당기간 유예하면서 과도기적인 기간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 또는 이 통일이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남북한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의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통일 이후 정신보건체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많이 발전해 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적 사건을 전환점으로 하여 우리 한반도에서의 정신보건체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4.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통일 과정 이후에 정신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북한 출신 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남한 출신 사람들도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통일 교육이다. 이러한 통일 교육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그 중에서도 사회 교육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남한 사람들 및 남북한 사람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발표되는 글 등을 통하여, 그리고 영화, 연극, 소설, 음악, 미술 등 대중예술 등을 통하여, 기타 다른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정신과 의사들은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와 의식의 특징을 상호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5. 이러한 준비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준비할 내용들은 어느 한 개인들이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일이다. 따라서 정신의학계는 이러한 통일 대비 활동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연구활동 및 사회, 의료활동을 조직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정신과 의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타 의료 영역 및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언론학 등 타 학문 분야의 사람들과 연

합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치는 말

정신과 의사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신적 갈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을 돕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새로운 정신적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통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새로운 갈등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작게는 우리의 미래 환자들에게, 그리고 크게는 민족에게 봉사하여야 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 민족의 정신과 의사들로 여기에 서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전우택 :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 정신의학적 고찰. 도서출판 오름 2000a
2. 전우택 :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1997 ; 36(1) : 3-18
3. 신의진 : 북한의 기아 상태가 소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 2000 ; 4(1) : 93-122
4. 민성길 : 통일과 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5. 전우택 : 집단기억 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2000b ; 5(2) : 179-195